

지역 소식통

정읍시 공직기강 감찰

정읍시가 오는 31일까지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감찰에 나선다. 공직자 복무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비위·부정행위를 바로잡아 시민에 신뢰받는 청렴한 정읍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감찰반을 편성에 분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여부와 함께 코로나19 비상상황 근무 정기인사에 따른 업무 공백과 각종 재난사고 대비 비상연락망 정비여부 등을 점검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코로나19 관련 지침 위반사항, 음주운전, 도박, 폭행 등 공직자 품위손상 행위, 어수선한 분위기를 틈탄 각종 불법행위 방치, 민원 부당차별, 민원 불친절 등 근무기강 해이와 복무실태 점검도 실시한다.

특히,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은 전남지역 공무원의 골프모임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바 있어 시는 코로나19 상황이 호전될 때까지 공직자의 골프모임 자체 등 사회적 거리두기의 적극 동참과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를 지시할 예정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사회적경제팀 출범

고창군이 지역내 사회적경제 기업과 공동체 업무를 지원하는 민간조직인 사회적경제팀을 출범 시킨다.

15일 고창군은 고창군공동체 지원센터에 사회적경제 중간조직인 '사회적경제팀'을 구성해 오는 20일부터 공동체사업과 사회적경제사업의 지원 업무를 담당한다고 밝혔다. '사회적경제팀'은 사회적경제기업 네트워크(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를 구축하고,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의 협의 조정, 지역 상황에 맞는 사회적서비스 발굴, 사회적경제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 컨설팅을 지원하게 된다.

앞서 군은 월곡뉴타운커뮤니티 센터 1층에 있던 공동체지원센터 사무실을 고창농산물유통센터 2층으로 확장 이전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퓨얼셀랩스, 미래차 개발 탄력

부안지역 내 스타트업,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사업 선정 135억 들여 소형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제품화 나서

부안군은 관내 수소연료전지 스타트업 (주)퓨얼셀랩스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한 2020년 EKG 3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시스템 반도체, 바이오 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의 역량 있는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을 선정해 혁신성장 및 성과

창출을 위해 R&D 사업화자금, 정책자금, 기술보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퓨얼셀랩스는 이번 선정으로 3년간 총 135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30kW급 소형전기차 수소연료전지 시스템 제품화에 박차를 가하게 됐다. 퓨얼셀랩스는 군에서 주력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탄소복합재 수소용복

합 연료전지 드론 상용화 지원사업과 연료전지 특화기업 집적화를 위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부안의 대표적 스타트업이다.

김태영 퓨얼셀랩스 대표는 "이번 사업은 수소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그린뉴딜과 맞닿아 있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지원으로 30kW이하 연료전지 부품을 포함한 시스템 기술 개발에 착수하고 연료전지 보급 확대를 위해 오는 2023년까지 소량 양산 라인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부안=김석진 기자



지난 13일 유기상 고창군수와 해당 부서장들이 기재부, 국토부, 해수부, 문체부 등을 찾아 국가예산 사업을 설명했다.

정읍시, 스마트 '미세먼지 쉼터 승강장' 호응

시기동 동하기정의원 앞 승강장 공기 순환기·냉난방기 등 설치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가 환경오염 문제를 벗어나 사회재난으로 대두되면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가운데 정읍시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시정의 무게 중심을 두고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시는 폭염과 차량 매연 등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 '미세먼지 쉼터 승강장'을 설치했다고 15일 밝혔다.

도심 도로에서 소음과 미세먼지, 자동차 배기가스에 직접 노출되는 기존 버스정류장의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쉴 수 있도록 조성한 것이다.

설치 장소는 시기동 동하기정의원 앞 승강장으로 시내버스 이용객과 통행 차량이 많고, 잦은 시내버스 정차로 인해 교통혼잡이 빈번한 곳이다. 승강장 내부에는 공기 순환기와 에어컨 냉난방기, 탄소 온열 의자 등



정읍시는 폭염과 차량 매연 등으로부터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스마트 '미세먼지 쉼터 승강장'을 설치했다.

을 설치해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회피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기환경 정보시스템을 설치해 대기환경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공기 질을 개선해 미세먼지에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이용환경을 조성했다. 여름철 휴서기에는 '무더위

쉼터'로, 겨울철 휴한기에는 '한파 대피소'로서 사계절 다목적용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진섭 시장은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의 건강 보호는 물론 쾌적한 휴게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 노인복지관, 어르신 문화쉼터 '오픈'

정읍시노인복지관 서예실이 어르신들을 위한 문화쉼터로 재탄생하고 15일 문을 열었다.

문화쉼터는 어르신들이 보람되고 즐거운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모임도 갖고 취미활동도 할 수 있는 노인 여가 복지 공간이다. 시는 전북은행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노인복지관 서예실을 리모델링해 어르신들의 문화와 복지를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 시켰다.

시에 따르면, 노인복지관의 서예실은 주변 일대 노인들에게 서예 한글, 사군자 수채화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오래되어 파손된 벽면과 바닥, 노후화된 책상과 의자, 부족한 수납장 등 환경개선이 필요해 800여만원 전북은행의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북은행은 파손된 벽면과 바닥 도배, 장판을 새로 단장하고, 넓은 책

상과 의자, 블라인드 등을 새로 교체해 쾌적한 분위기의 여가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서예 활동을 위한 먹물과 화선지 등을 함께 지원해 이용 어르신들이 더욱 즐거운 서예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왔다.

전북은행 이상관 부행장은 "새롭게 조성된 문화쉼터에서 즐거운 여가활동을 통해 활기 넘치는 노후 생활을 이어가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북은행은 지속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예산활동 행정력 집중

기재부 전방위 설득작업 나서

정부의 내년도 국가예산안 2차 심의가 한창 진행 중인 가운데 고창군의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기재부와 정부부처 설득작업에 나섰다.

15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13일 유기상 고창군수와 해당 부서장들이 기재부, 국토부, 해수부, 문체부 등을 찾아 국가예산 사업을 설명했다.

유 군수는 기획재정부 안도걸 예산실장과 면담을 갖고 '식초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공업 플랫폼 구축사업(30억원) 등을 설명했다. 사업은 지난해 고창군이 식초문화도시 선포이후 식초를 고창군 식품산업의 중요한 핵심 자산으로 육성하기 위한 핵심사업임을 담고 있다.

또 역사문화관광산업의 핵심인 동학농민혁명 성지화 사업(220억원)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반영에 대

해 협조를 건의했다.

해양수산부 김양수 차관을 만난 자리에선 '패류(바지락)종자 대량생산·시설 확충사업(100억원)' 설명하고, 전북 서해안권 내 마지막 1번지 고창의 중요한 생산기반이 될 수 있는 핵심사업임을 공감하며 사업반영이 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고창군은 기재부 예산심의가 마무리되는 8월말까지 정부안 최대 예산 확보를 위해 전북도 지역 정치권과 힘을 모아 집중 설득작업을 벌일 방침이다.

유기상 고창군수는 "내년도 중점사업 국비확보를 위해서 기획재정부 실무담당부터 국장까지 지속적으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며 "쟁점사항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대응노력을 마련해서 정치권 공조를 통해 기재부를 설득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유기상 고창군수, 지역 청소년과 '대화의 장'

유기상 고창군수가 지역 청소년들과 만나 대화의 장을 가졌다.

15일 고창군에 따르면 유기상 군수는 이날 오후 고창 공음중학교에서 소풍·공감 대화의 장을 가졌다.

유기상 군수의 진로특강은 지난해부터 관내 학교를 순회하며 열리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의 여파로 연기됐다가 이번에 공음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열었다.

유기상 군수는 방장산 나무꾼에서 9급, 7급, 도 기획관리실장, 군수 당선에 이르기까지의 인생역정을 들려주며 "기승수에 큰 꿈을 담고, 해낼 수 있던 자신감을 갖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기상 군수는 청소년들이 고민하는

진로 선택에 있어 독서와 사색의 중요성, 자신이 좋아하는 일에 대한 열정과 끈기, 도전을 주된 내용으로 강의를 진행해 학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유기상 군수는 이날 중학생들에게 '한반도 첫수도 고창', '농생명 식품산업', '폭격있는 역사문화 관광'의 의미 등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유 군수는 "올해 모든 한국사 교과서에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의 의미가 수록되고, 인기 역사탐방 프로그램에도 소개됐다"며 "자랑스런 고창의 인재로 커가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강과 함께 자유토론 시간을 가져 많은 학생들과의 공감하고 소통하는 대화의 장이 됐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